

New Normal 혹은 Abnormal?:

Slavoj Zizek의 사상으로 본 기독교 학문의 가능성

조현우 침신대 조직신학 박사과정

I. 들어가는 말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발견된 지 18개월이 지났다. 확진환자는 일억 오천만 명을 넘고 사망자는 삼백 이십만 명을 넘은 이 시점에 기독교(혹은 신학)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는가? 이번 학술대회가 던지는 이러한 질문들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저히 익숙해 질 수 없을 것 같았던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지금,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사회·교육·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들이 뉴 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세계-내-존재’로서 모든 분야의 모든 이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전의 기준들을 재평가하고 수정해야만 할 것이고, 기독교 신학 역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말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 용어는 지난 2008년 있었던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low-growth), 저금리(low-interest), 저물가(low-price), 고실업률(high unemployment rate) 등의 새로운 경제 질서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를 넘어서 원격진료, 비대면 수업, 비대면 쇼핑, 재택 근무 등 사회가 전체적으로 온택트(Ontact)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개편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¹⁾ 교회 역시 온라인 예배에 관한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음을 경험했고, 앞으로 교회는 온라인 콘텐츠에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해야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의 기독교 학문에 대해 예측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도구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작업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만큼 새로운 시대에 영향을 끼칠 변수들이 많고 그 추이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연구자는 Slavoj Zizek의 사유를 도구로 삼아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기독교 학문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세 가지로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그의 사상을 신학에 전적으로 전유하자든지 반대로 완전히 반대하자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의 개념 장치들을 통해 뉴 노멀 시대의 기독교 학문의 방향성을 탐색할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지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김재원, “뉴 노멀’을 뜯어본다” 「온라인 자료」 <http://www.jeje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 =316303>, 2021년 5월 6일 접속.

물론 Zizek은 신학자가 아니며 기독교인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 사상의 역사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기독교 신학은 시대의 변화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틀을 받아들임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개혁을 성취해 왔다. 기독교 사상사에서 바울 이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로 평가되는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플라톤의 초월론적 형이상학과 지식론이라는 틀을 이용해 신학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한 세대의 마지막임과 동시에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²⁾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어거스틴적 체계의 여러 한계들이 드러나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역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체계를 사용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신학을 정립하여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되었다.³⁾ 유럽 교회가 정치·경제·종교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던 16세기에 유명론적인 틀을 통해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며,⁴⁾ 계몽주의와 관념주의적 틀을 통해 근대 신학이, 그리고 실존주의적 틀을 통해서 20세기 신학이 이루어져 온 역사들을 되짚어 본다면,⁵⁾ 새로운 시대에 있어 기독교 학문의 뉴 노멀을 탐사하기 위해 기독교인이 아닌 Zizek의 사유를 고찰하는 작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⁶⁾ 물론 그러한 작업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될지 비-노멀(Ab-Normal)이 될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학문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혹시 Zizek이 낯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그를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동유럽 슬로베니아 출신인 그는 자크 라캉과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상을 독창적으로 종합하여 이데올로기 비판과 문화 비평 분야에서 방대하고도 탁월한 작업들을 통해 (긍정적 호응과 부정적 비판 양 측면 모두에서)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서구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문화 이론의 엘비스 프레슬리,” “MTV 철학자” 등의 별명이 그의 유명세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그의 작업을 요약하면,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과 철학(특히 독일 관념론)을 독창적으로 종합한 개념 장치를 통해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건들에 개입하여 그 속에 내재된 사회적(상징적) 모순과 그 한계들을 드러내고 ‘새로운 가능성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주체성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로 72세인 그는 영어권에서 45권의 책을 저술하고, 35권의 책을 공동 집필했으며, 슬로베니아어로도 27권의 책을 펴냈다.⁷⁾ 코로나에 대한 책도 이미 2권이 나왔다. 영미권과 남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대륙에서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수천 명이 몰려드는가 하면, 경희대학교를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되었고, 그에 대한 논문과 기사들이 다양한 언어로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2) Justo L. González, 「기독교 사상사」(II), 이형기, 차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25.

3) Ibid., 321.

4) Alister E. McGrath, 「루터의 십자가 신학」, 정진오, 최대열 역 (서울: 컨콜디아사, 2001), 39-80.

5) Stanley J. Grenz, 「20세기 신학」,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7), 13-5.

6) 흥미로운 사실은 철저한 유물론적 무신론자인 Zizek이 자신이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을 발견한 기독교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주장을 정통 신학의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7) “Slavoj Žižek bibliography” [온라인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Slavoj_%C5%BDi%C5%BEE_k_bibliography, 2021년 5월 6일 접속.

본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현재 가장 주목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인 Slavoj Žižek의 개념 장치를 분석하여 그것이 뉴 노멀 시대에 기독교 학문의 방향성을 제시할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타진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질 Žižek의 개념 장치는 대타자, 주인기표(S1), 주체이다. 이 셋은 각기 다른 개념들이지만 서로 분리 불가능하게 엮여 있다. 본 논의는 주체의 현실이며 구성적 전제인 대타자에서 시작하여 대타자를 구성하는 토대적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기표를 지나 진정한 ‘대타자는 없다’는 비전체인 대타자를 받아들이는 라캉적 주체라는 흐름으로 이 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개념장치 분석으로 기독교 신학에 적용할 경우 우리는 기독교 신학이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성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새로운 주인기표를 만드는 학문(New Normal), 이데올로기 비판적 학문(Ab Normal), 마지막으로 보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초월성을 잃어버린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학이 초월성을 담지할 새로운 자리(Super Normal)를 탐사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각 방향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는 각각의 방향성을 틀 지우고 가늠해 보는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I. Slavoj Žižek의 개념 장치들

1. 대타자

Žižek의 모든 주장은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대타자를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을 놓치면 그의 주장들을 오해하기가 쉽다. 게다가 Žižek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중요한 핵심 원리로 자주 사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비틀기를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Žižek의 이러한 비틀기들을 단순히 라캉에 대한 오해나 남용으로 쉽게 비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러한 ‘기표의 해방’은 정확히 라캉이 의도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⁸⁾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Žižek을 접근할 때는 그가 어떤 개념을 명제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언제나 어떤 공백 주위를 반복적으로 돌면서 그 둘레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그 가운데 있는 공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Žižek의 개념을 명제화 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분명한 한계에 부딪히게 됨을 유의해야 하며, 본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8) 읽히지 않는 텍스트를 쓰기 원했던 라캉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지식(savoir)이 아니라 공백에 대한 히스테리적 욕망(죽음 충동)이었다. 라캉의 글이 그렇게 난해하고 그의 글 안에 상충하는 개념들이 이율배반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기표(개념)의 재구성(해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었고, 연구자가 보기에 Žižek은 바로 그러한 라캉의 히스테리적 욕망을 그대로 물려받아 반복(강박)적인 실천을 충실하게 구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Žižek의 작업은 신학의 영역에서도 완전히 새로움을 영역으로 - 유물론적 무신론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 재구성(기표의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테마이다. 백상현, 「라캉의 정치학 - 세미나11 강해」(성남: 에디투스, 2020), 22-40. 연구자는 라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LPI(Lacanian Praxis Institute)의 백상현의 강의에 빚지고 있다. 백상현은 현재 국내에서 라캉의 가장 유력한 해설자 중 한명으로 추천될 수 있다.

그러한 한계를 인지하면서 그의 개념들을 설명해 보자. Žizek이 라캉에게서 전유하는 대타자/소타자는 본래 타자(Other, 불어로는 Autre)를 의미하지만 우리말 맞춤법에 존재하지 않는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별을 나타내기 위해 번역어에서 사용되는 구분이다. 소타자란 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웃으로서의 상상계적 타자들을 의미하는 반면에 대타자는 그러한 소타자들 뒤에 있는 추상적 타자를 의미한다. 라캉의 사유에서 대타자는 다형적이고 원형적이었던 주체의 욕망을 거세해서 빗금 쳐진 주체로 만드는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가부장적 권력으로 상징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라캉의 정신분석은 국가, 교육기관, 종교, 도덕, 성차 등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주체를 빗금치고 상징계에 주체의 좌표(topos)를 기입하는 대타자로부터 ‘소외’와 ‘분리’의 과정을 통해 환상을 횡단하고 진정한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⁹⁾

Žizek에게도 역시 대타자는 ‘상징적 거세’라는 ‘분리’와 ‘소외’의 작인(agent)으로서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복(강박)적으로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의 사유 전체가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대타자의 지위가 “주체의 고문실”이라고 말한다.¹⁰⁾ 그것은 주체를 억압하고, 주체의 자유를 빼앗으며, 주체가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빗금치는 작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세’란 실제 신체 기관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향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¹¹⁾ 이것을 라캉은 “존재는 죽으며(문자는 살해한다), 오직 기표만이 살아간다”고 표현했으며,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지적했고, 정신분석학의 윤리적 공리가 “너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마라”임을 강조했다.¹²⁾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대타자는 욕망의 주체를 거세하고 타자의 욕망을 주체에게 강요하는 거짓된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대타자가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임을 의미한다.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끝났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Žizek의 주장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그의 진단은 오히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는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허위 의식이나 현실에 대한 착란적인 표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현실 자체라고 지적한다. 이데올로기는 그것의 본질에 대한 무지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현실이라는 것이다.¹³⁾ 그렇기 때문에 Žizek의 사유는 이러한 거짓된 환상인 이데올로기적 대타자의 허위를 세밀하게 드러내어 주체들이 그로부터 자기만의 향유를 찾도록 대타자를 횡단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 비판에 그 근본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타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타자(그리고 궁극적 대타자로서 언어)는 주체의 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대타자는 거짓

9) 백상현, 「라캉 정신분석, 세미나 11의 강해 강좌 - ‘프로이트로 돌아가자!’의 명제 해설」 [온라인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GyiIAW16Qi0&t=922s>, 2021년 5월 10일 접속.

10) Slavoj Žižek, 「라캉 카페」, 조형준 역 (서울: 새물결, 2013), 1529.

11) Bruce Fink외 4인, 신형철외 7인 역 「성관계는 없다: 성적 차이에 관한 라캉주의적 탐구」 (서울: 도서출판b, 2005), 28-31. 이 책에 Žižek의 글 역시 포함되어 있지만, 본 표현은 핑크의 설명이다.

12) Ibid., 32-60.

13) Slavoj Žižek,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서울: 새물결, 2013), 50.

된 환상이며 “거짓말 하기의 질서”¹⁴⁾이지만, 바로 그 환상에 의해 주체는 현실에 진입하게 된다. 대타자의 상징적 질서 안으로 진입할 때 주체는 향유(충동)를 잃어버리지만 욕망을 얻게 된다. 즉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욕망할 수 있도록 욕망의 틀을 짜며, 욕망의 좌표를 제시한다. 즉, 환상의 시나리오는 주체의 욕망을 구성한다.¹⁵⁾ 그를 통해 이 상징적 허구는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상징적 현실을 구조화하며, 현실 자체가 이러한 환상에 의해 움직인다.¹⁶⁾ 또한 대타자는 주체들 간의 만남의 매개의 역할을 수행한다.¹⁷⁾ 그러므로 상징적 대타자의 질서는 자연이나 대상 그 자체보다 더 현실적인 주체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타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대타자는 완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주체의 인식능력을 유한한 것으로 이해하고, 현실의 상태를 무한하고 초월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철학적 상식에 반대하면서 Žizek은 대타자의 비전체임, 즉 주체뿐 아니라 상징적 질서 자체도 어떤 근본적 불가능성에 의해 빗금 쳐져 있으며, 어떤 불가능한/트라우마적 중핵, 중심의 결여를 중심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는 것¹⁸⁾을 밝히는 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의 대부분의 철학적 사유들이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는 Žizek이 강조하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만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윤리적 구성물이며, 주체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¹⁹⁾ 라캉 역시 ‘대타자는 없다,’ ‘타자의 타자는 없다’는 표현으로 이를 제시했으며, 이에 근거해서 ‘환상을 횡단하기’가 정신분석 치료의 근본목표라고 주장했다.

2. 주인 기표(Master signifier, S1)

변별적 질서인 기표의 연결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기 위해서는 라캉이 ‘누빔점’(Point de caption) 혹은 ‘주인기표’라고 부른 것이 필요하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대표적인 주인기표는 ‘팔루스’(Phallus)이다. 팔루스란 주체가 향유를 포기하고(빗금 쳐지고) 상징적 질서에 진입할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주체는 팔루스를 소유하거나(남성적 방식), 팔루스가 될 때(여성적 방식) 잃어버린 향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한다. 그러나 팔루스는 언제나 지연된 만족일 뿐이다. 즉 결코 잃어버린 향유와 동일시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빗금 쳐진 주체는 욕망의 만족을 결코 얻을 수 없으며, 단지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뿐이다.²⁰⁾

14) Slavoj Žižek,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역 (서울: 도서출판b, 2005), 530.

15) Slavoj Žižek,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196.

16) Ibid., 68.

17) Slavoj Žižek, 「헤겔 레스토랑」, 조형준 역 (서울: 새물결, 2013), 344.

18) Slavoj Žižek,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202.

19) Ibid., 74.

20) 백상현, “팔루스의 비밀 세미나 17강해” 「온라인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6jr61Wemt0&list=PLwNlM9rewHRyEhYbG-XID4BaHeiASztV6&index=1&t=3161s>, 2021년, 5월 10일 접속. 이 강의는 비

Zizek은 특유의 변증법적 비틀기를 통해, 주인기표(누빔점)의 근본적 역설을 제시한다. 즉 ‘고정적 지시자’로 기능하는 누빔점은 기의의 환유적인 미끄러짐을 멈추게 함으로써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전체화하는 주인기표이다. 그것은 기표와 기의의 장을 봉합하며, ‘기의가 기표에 딱 들어맞는’ 점으로 작용하여²¹⁾ 상징적 질서를 출현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의미가 최상으로 응축되어 있는 지점이 아니라 순수하고 무의미한 “기의 없는 기표”이며,²²⁾ 궁극적으로 우연적인 요소이다. 즉 처음부터 ‘주인 기표’인 것은 없다.²³⁾ 이러한 고찰의 결과는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징적 필연성이 사실은 우연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⁴⁾ 보편자의 실존이 ‘텅 빈 기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그러므로 Zizek(과 라캉)에게 있어 지배적인 상징적 질서의 근본적 재분절화(정신분석에 있어서는 치료의 종결인환상을 횡단하기, 정치적으로는 혁명)는 전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Zizek이 원하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목표는 이러한 역사적 단절, 특별히 전 지구적 자본주의를 새롭게 재구축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주인 기표를 출현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주인 기표의 출현은 언제나 모든 전통적 의미를 소급적으로 바꾸고 과거의 나레이션을 재구축하며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읽히게 만들기 때문이다.²⁶⁾ 즉 새로운 누빔점이 출현할 때 사회적-상징적 영역은 전치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구조화 원리 그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²⁷⁾ Zizek은 이것을 위한 투쟁이 정치적 투쟁이라고 말하면서 정치는 사회의 불가능성을 표상하는 텅 빈 기표의 내용을 위한 투쟁이라고 정의한다.²⁸⁾ 이러한 저항은 정확히 라캉적인 것이라 평가될 수 있어 보인다.

3. 주체

주체는 Zizek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체는 그가 원하는 정치적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Zizek의 주체는 일반적인 자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아심리학 계열을 위시한 프로이트 학파들이 말하는 주체(자아)는 상징적 질서 안에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빗금쳐진 주체인 반면에 라캉의 주체는 대타자의 상징적 구조의 본원적 공백, 즉 결여이다.²⁹⁾

공개 유료 강의라서 외부자의 접속은 불가능할 것이다.

21) Slavoj Žižek, 「라캉 카페」, 1043.

22) Slavoj Žižek,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167.

23) Slavoj Žižek,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박정수 역 (고양: 인간사랑, 2004), 174.

24) Slavoj Žižek, 「까다로운 주체」, 78.

25) Ibid., 285.

26) Slavoj Žižek,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103.

27) Slavoj Žižek, 「까다로운 주체」, 421.

28) Ibid., 285.

이러한 주체 개념은 포스트 구조주의의 주체-위치 개념과도 다르다. 이것은 라캉에게서는 ‘주체화’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비주체적 과정의 효과로서 주체는 항상 전주체적 과정(글쓰기/욕망 등)에 의해 관통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³⁰⁾ Žizek이 보기에 이것은 얼마간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인데, 주체는 그 자체로 세계라는 식물 속의 그 근본적인 전치, 어떤 상처 내지 절단에 붙여진 이름이며, 모든 주체적 동일화란 궁극적으로 이 상처를 꿰매려는 일련의 실패한 시도들일 뿐이기 때문이다.³¹⁾

Žizek은 주체가 보편자와 특수자의 존재론적 틈새와 엄밀히 상관적이라고 설명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현실은 ‘비전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론적 일관성을 얻기 위해 주체의 우연적 제스처라는 보충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주체는 실정적 존재론적 질서를 토대짓는 우연성이며, 자신을 지워버리는 제스처를 통해 선-존재론적 혼돈의 다양성을 현실이라는 실정적 ‘객관적’ 질서의 유사물로 변형시키는 ‘사라지는 매개자’이다.³²⁾

Žizek은 칸트와 하이데거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이러한 공백으로서의 주체성의 심연을 마주쳤지만,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쳤다고 평가한다. 칸트에게서 이러한 뒷걸음질은 예지계와 현상계를 분리하고 인간이 예지계에 너무 가까이 접근할 경우 주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광기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제한한 데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라캉에게서 이러한 예지계와 현상계의 틈새는 현상계의 가운데를 꿰뚫고 있으며, 주체를 구성하는 공백인 것이다. Žizek은 하이데거 역시 그러한 궁극적 (불)가능성으로서의 주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인 세계-내-존재 차원의 중지, 즉 정신증적 자기 철회를 발견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와 시간」이 마무리 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³³⁾

반면에 이러한 주체성의 심연을 끝까지 파헤친 것이 라캉이다. 라캉의 요점은 주체라는 것이 존재의 바로 그 존재론적 구조를 지탱하는 행위의 우연성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즉, 주체란 보편적 존재 질서를 구성하는 우연적-과잉적 제스처이며, 보편적 틀을 지탱하는 특수한 요소의 역설이다. Žizek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많은 개념 장치들을 사용하지만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든 존재론이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상징적 질서인 인간의 현실은 그것에 의해 부인된, 우연적인 ‘주체적’ 결단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 Žizek은 이것을 헤겔의 ‘세계의 밤’ 혹은 데카르트의 근본적 자기-철회의 광기’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현실을 파악할 우리 능력의 인식론적 제약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현실 그 자체의 존재론적 조건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³⁴⁾

29) Slavoj Žižek,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276.

30) Ibid.

31) Slavoj Žižek,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다」, 18.

32) Slavoj Žižek, 「까다로운 주체」, 258-60.

33) Ibid., 45-91.

그러므로 주체는 '타자는 없다'는 대타자의 비실존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여를 메움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결여를 타자 속의 결여와 동일시 함으로써 '환상을 횡단'하고 새로운 상징적 질서를 재배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Žizek이 강조하는 자유의 행위이다. 그는 주체성의 과잉(헤겔이 세계의 밤이라고 불렀던 것)을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단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⁴⁾ 다르게 표현하면, 몰래 지켜보며 행복한 결말을 보장해주는 어떠한 대타자도 없이 신에게서 버림받은 채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경험, 그것이 곧 Žizek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의 심연'이라는 것이다.

분량의 제한으로 깊이 있는 설명이 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연구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흐름은 어느 정도 설명된 것 같다.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이루는 상징적 질서인 대타자는 주체에게 구성적이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그것은 주체를 거세하고 억압하며 주체가 주체가 아니게 만드는 작인으로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극복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주인 기표를 발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인 기표는 대타자의 상징적 질서 전체를 재배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토대이면서 결과가 바로 주체이다. Žizek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사유는 바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New Normal 혹은 AbNormal?

1. New Normal로서의 기독교 학문의 가능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세상의 질서는 재편되고 세계-내-존재로서 모든 이들은 학문과 일상의 모든 기준들을 재평가 하고 재편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것을 우리는 뉴 노멀(New normal)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온라인과 영상에 관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사람들의 취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주인기표를 생성해 내는 것이다.

Žizek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모든 상징적 질서는 '텅 빈 기표' 혹은 '기의 없는 기표,' 즉 우연성과 공백을 표지하는 기표에 의해 누벼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주인 기표는 다른 모든 기표들의 의미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주인 기표를 가진 체계냐에 따라 다른 기표들의 의미와 배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화폐라는 기표는 자본주의에서와 공산주의에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전자에서 화폐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담지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후자에서 화폐는 물신주의적 오인의 대표적 사례로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4) Ibid., 258-60.

35) Ibid., 214.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서 인간의 자유라는 기표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표상된다. 선교학에서도 전통적 복음 전파를 지지하는 진영과 사회복음을 지지하는 진영은 선교라는 기표를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뉴 노멀의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기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주인기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주체적인 작업이며 개혁과 혁명의 산물이었다. 낡은 시대의 주인기표를 고수하는 신학은 새로운 시대에 유효성을 갖기 어렵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의 신학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다면, 철학자들이 개념의 발명자인 것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주인기표를 발명해 내야한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에게는 '은혜'가 주인기표였고, 마틴 루터에게는 '믿음'이 주인기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주인기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것만으로 또 하나의 큰 연구가 될 것이다. 앞서 밝힌대로 본 연구의 범위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틀 지우고자 하는 것까지이다. 다만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주인 기표가 이전에 신학에 등장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기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Zizek의 말처럼 주인 기표는 '텅 빈 기표'이기 때문에 어떤 기표도 주인 기표의 자리를 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상징적 질서를 새롭게 구조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은혜'가 이 시대에 적실한 새로운 주인기표가 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대가의 경제에 종속된 속죄 개념을 지지해 왔다.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진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는다든지, 마귀에게 팔려 간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속전을 지불한다는 등의 속죄 개념들은 대가의 경제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가의 경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세상의 원리와 매우 중첩되는 것도 사실이다.³⁶⁾ 그러한 '대가의 경제'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느꼈던 데리다는 '대가의 경제'를 벗어나는 '선물의 경제'를 생각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의 경제'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³⁷⁾ 전통적으로 '은혜'와 '용서'로 대표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로 이해되어 왔던 반면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편이 상당히 의미 있을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점의 변화는 전통신학이나 세상의 논리를 근간부터 뒤집는 힘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새로운 주인기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시대 기독교 학문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영역 모두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배의 의미가 새롭게 비춰질 것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가 무엇인지도 새로운 의미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인기표를 찾아내지 못한 채 피상적인 차원에서 기술적인 접근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러한 접근들의 발전이 오히려 신학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Zizek식으로 예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36) 연구자는 이러한 통찰을 본교 '신학과 포스트모던' 세미나에서 얻었다.

37) 윤원준, "해체와 선물," 『조직신학 논총』 Vol.8 (2003), 223-41.

2. AbNormal로서의 기독교 학문의 가능성

다음으로 새로운 시대에 기독교 학문은 이데올로기 비판적 학문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학을 ‘예언자적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학문적 비판은 세속적 학문의 기준을 가지고 전통 신학에 가해지거나, 실천적 움직임(신사회 운동 등)으로서 죄 된 세상의 부조리함을 향하기도 했다. 필만은 교의학이 ‘교회의 기능’으로서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성서와 교회의 선포를 따라야 하기도 하지만 학문적 합리성을 위해 비판적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 비판 역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⁸⁾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우리는, Zizek을 따라 학문적·철학적으로도 죄 된 세상의 어그러진 상징적 질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이데올로기적 신학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대를 지나면서 기독교 신학이 공적 학문의 영역에서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Zizek은 반복해서 기독교를 참조하고, 유물론자야 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행해 왔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기독교 학문이 다시 공적 학문의 영역에 뛰어들어 가서 철저한 합리성과 통찰로 세상과 철학에 대해 이데올로기 비판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며 이전의 시대보다 훨씬 더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이다. 현대 철학의 최고봉에서 들려오는 종교적 전회의 메아리들을 보라. 데리다를 위시하여 벤야민, 레비나스 등 최고의 철학자들의 사상에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메시아적 도래, 종교 없는 종교임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선점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러한 작업은 세상의 견지에서 보면 비정상(AbNormal)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뉴 노멀(New Normal) 역시 정상의 자리를 잡게 된 비정상(AbNormal)이지 않은가? Zizek의 작업이 반복(강박)적인 죽음충동의 주체적 작업으로 새로운 상징적 질서를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 학문이야말로 그러한 예언자적 외침을 세상에 들려주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세상의 학문에 밀려났거나 순응했던 것은 아닌가? 새로운 시대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세상의 상징적 질서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거짓된 환상임을 철저한 합리성으로 폭로할 수 있는 비정상(AbNormal)으로서의 예언자적 주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기독교 학문과 초월성

좀 더 이론적인 수준에서 Zizek의 작업은 한 가지 중요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신학의 초월성의 자리를 탐사하는 것이다. 신학과 철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았던 전근대 시대까지 신학자들은 성경이 선포하

38) H. G. Pöhlmann, 「교의학」, 이신건 역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2), 34-51.

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했다. 39)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와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계 간의 간격을 없애 버렸다. 그러한 상황에서 19세기 신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신학)의 초월성을 담보하고자 애썼지만, 20세기를 지나면서 초월성(형이상학)은 더이상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형해화(形骸化)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신학은 초월성을 포기한 채 ‘언어의 집’ 안에 갇혀야만 하는가? 신학이 초월성을 포기할 수 있는가? 혹은 초월성을 주장하기 위해 자기만의 계토에 갇혀 있기를 선택해야만 할까?

기독교 학문은 초월성을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학문적 엄밀성을 포기하는 것도 올바른 길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제 3의 길이 있을까? 연구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철학의 최고봉에서 들려오는 종교적 전회의 메아리들이 그것이 가능함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 기독교 학문은 엄밀한 학문의 영역에서 신학이 초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탐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능해 보인다. 한 가지는 데리다의 방향을 따라서 ‘절대 타자’로서의 초월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40)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카푸토의 ‘사건의 신학’에서 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가능한 방향은 ‘절대적 부정성’으로서의 초월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절대적 부정성’ 역시 Zizek의 사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타자의 ‘비전체’를 폭로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초월성 자리로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이것은 연구자가 아직 연구 중인 과제로서 연구자의 학위논문을 통해 자세하게 개진될 것이다. 물론 이것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이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흥미로운 주제로서 기독교 학문의 초월성을 담지하고자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IV. 나가는 말

Zizek은 뜨거운 관심과 매몰찬 비판을 동시에 받는 이 시대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신학계에서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Zizek에 대한 기독교 학문의 반응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많은 진지한 통찰들과 훌륭한 개념 장치들을 기독교 학문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선택은 주체들의 몫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 학문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사유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

39) Stanley J. Grenz, 「20세기 신학」,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7), 496.

40) 윤원준, “John D. Caputo의 사건의 신학에 관한 고찰,” 「복음과 실천」 Vol.54 No.1 (2014), 193-220.

한 실천적 사유의 대가가 바로 Žižek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유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고집스러운 정도로 반복(강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라는 말이 Žižek만큼 어울리는 학자도 드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Žižek은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유물론적 무신론자의 주장을 가볍게 일축하고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Žižek의 사유와 실천에 매료되어 그를 따라 ‘새로운 가능성의 가능성’을 열정적으로 탐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Žižek의 사유에 의하면 전자는 자아이고 후자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뉴 노멀이란 ‘새로운 가능성의 가능성’을 탐사하는 주체에게는 희망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에게는 마뜩잖은 변화일 것이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아에게, 혹은 자아였던 교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모험의 장은 아닐까?